

# “전통마을 자원화, 기초조사·경관관리 필요”

### 광주전남연구원 송태갑 연구원 보고서 광주·전남 18개 마을 실태 파악 활용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시급

광주·전남의 전통마을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기초조사와 체계적인 경관관리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송태갑 선임연구원은 '정책연구보고서' 중 '광주전남 전통마을의 경관관리 실태 및 활용방안'을 통해 "광주전남의 전통마을은 입지나 유형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고택, 노거수, 담장, 우물, 마당 및 토방 등 우리의 전통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 상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18개 전통마을을 조사하여 기초적인 경관관리 실태를 파악했다.

이 가운데 마을특성과 완성도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광주양림마을(도시형), 광주·담양의 충효·평촌·지실마을(복합상생형), 순천 낙안읍성마을(전통형), 구례 상사·오미마을(산촌형), 장흥 방촌마을(농촌형) 등 5개 마을을 최종 선정해 경관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마을에 대한 분석 결과, 전통요소와 현대적 요소의 이질감 발생, 특정요소 중심의 점적인 관리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관적인 완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경관을 비롯하여 역사적 인물, 다양한 스토리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

관자원과 연계한다면 잠재력 있는 지역자원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택 등 건조물 위주의 보존에서 탈피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 경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마을 경관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전통마을의 지역자원화 방안으로는 우선 전통 마을에 대한 경관자원, 인문자원 등에 대한 기초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도 제기됐다.

송 연구원은 특색 있는 5개 전통마을에 대해 각각 활용방향을 제시했다.

낙안읍성은 이미 전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읍성마을로서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개별 가옥별로 차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충효마을 '평촌마을(광주), 지실마을

(담양)은 행정구역이 다르고 마을자원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사문화와 별서정원, 무등산권이라는 공통점을 감안해 상상마을 모델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미마을과 상사마을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공유하고 있는 명품마을로 운조루, 곡전재, 쌍산재 등 고택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정원마을로 가꾸어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방촌마을은 전통과 자연 등 체험교육형마을로, 양림동은 평민마을, 선교사유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마을로 가꾸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전통자원이나 자연경관 등의 경쟁력, 주민들의 고령화 등 마을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를 수 있으나 주민협의체 및 마을협의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봄철 야외활동 참진드기 주의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1월 9마리서 4월 245마리 채집

최근 기온이 올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참진드기가 증가하고 있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이 "봄철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발생성질환의 발생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중 매달 1회씩 관내 3곳 야산, 등산로 인근 숲속, 휴경기 등에서 참진드기를 채집하고 있다. 또 중분포도 SFTS바이러스, 라임, 리케치아 등 진드기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의 보유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방세 구제제도와 수질정신·경정

월에 9마리, 2월 55마리, 3월 89마리가 채집됐고, 4월에는 3월의 약 3배인 245마리가 채집돼 광주지역 내 참진드기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집된 진드기에서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참진드기에 물릴 시에는 라임, 리케치아 등 다양한 발생성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풍, 등산 및 봄나물채취 등 야외활동을 할 때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는게 좋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길라잡이' 발간

광주시는 4월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2019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방세 세목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 기업 관련 지방세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 구제제도와 수질정신·경정

청구 등을 수록해 지방세 납부에 있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광주시는 책자 1천부를 분청, 산하기관, 광주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서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선정

광주시 서구가 광주·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대상지로 선정됐다.

4월 서구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광주시 서구를 비롯한 8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구는 전체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5개 종합병원이 권역 내 노인을 전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또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생활 중인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례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관협력의 성공적 복지모델로 인정 받아온 그 동안의 노후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남구 '청년활동 포인트제' ...정책 제안 등 상품권 지급

광주시 남구가 청년들의 정책 제안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활동 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구정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주고, 5만 포인트 이상 모이면 문화상품권(1점당 1원)을 지급한다.

제안 분야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청년 공간인 '청년와라' 운영 활성

화 방안, 특화 청년 정책 사업 아이디어 발굴, 청년 공간 활성화 방안 등이다.

해당 아이디어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포인트 10만점(포인트당 1원)이 부여된다. 남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오는 12월 포인트를 환산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첫 회의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4일 공사 인권경영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었다. <사진>

최근 공공기관 인권준중 책임이 특히 강조됨에 따라 인권경영 도시공사는 지난 3월 '인권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공사'라는 인권비전을 바탕으로 4개 추진전략, 23개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했

다. 이에 체계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회의에서는 2019 인권경영 추진계획과 도시공사 인권경영 등을 논의했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 인

권침해행위 심의 및 조치권고, 구제·방지 계획 등 인권경영 실행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사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

노경수 도시공사사장은 "인권경영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내부직원은 물론 공사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구 합동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지도점검

광주시는 9일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지도점검에 나선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55대 이상 차량이 거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식·주행거리 표시 여부, 성능 고지 여부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매매업체

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상품자동차 제사 가격·연식·주행거리 표시 여부, 성능점검 기록부 고지 이행, 매매종사원 신분증 패용, 고객행위 등을 중심으로 살피 방침이다. 위반업체에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